

이달의 작가 - 남 정 예

현대 민화의 창작에 관한 범본(範本)



꿈꾸는 호랑이 ▲

'불가사의한 조선 민화'라고 감탄하였고, 리심(梨心)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프랑스 대사 빅토르 콜랭 (Victor Collin de Plancy)의 수집품 가운데는 민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화가 갖는 인간의 감성을 아찔하게 홀리는 환상적인 조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화의 종류에는 단일 모티프를 주제로 한 책가도, 문자도, 십장생도, 화조도, 모란도 등과 고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서술해 내는 곡분양행락도, 요지연도 등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모란도는 '궁모란병(宮牧丹屏, 嘉禮都監儀軌 1627)'이라 하여 왕실의 결혼, 생일, 회갑과 같은 각종 잔치에 이미 사용되어 왔음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글 : 박 옥 생 (한원미술관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민화'라는 용어는 막사발과 같은 조선의 민예품에 깊은 감동을 받은 야나기 무네요사(柳宗悅)가 조선인들이 그린 소담한 그림을 보고 일컬은 말에서 시작되었다. 야나기는 조선의 책거리 그림을 보고

왕실의 그림들은 조선 후기 사회의 금속화폐의 유통과 상품경제의 진전, 농업과 수공업상의 생산 확대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킴으로써 민간으로까지 확산, 대중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화의 지속되는 대중적인 인기는 즐거운 표현성과 현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조형적인 미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민화의 전통을 그대로



책걸이 ▲



그리움 ▲



소나무 ▲